융의 분석 심리학

- 정신분석은 인간의 마음을
 - 의식
 - 전의식
 - 무의식으로 구분
- 분석심리학은
 - 의식
 - 개인 무의식
 - 집단 무의식으로 구분
- 분석심리학은 정신분석의 무의식을 둘로 나눈 것 X
 - 정신분석의 무의식
 - 과거의 경험과 억압된 욕구와 기억
 - 사람마다 다름
 - 분석심리학의 개인 무의식이 이에 해당
 - 집단 무의식
 - 개인이 아닌 인류 전체의 경험으로 생겨나는 무의식
 - 태어날 때부터 마음에 자리 잡고 있음
 - 정신분석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새로운 개념

집단 무의식의 근거 : <u>신화와 민담, 전설이나 민화에서 공통적으로</u> <u>나타나는 상징</u>

by 분석심리학의 창시자 융(Carl Jung)

어떻게 인류가 공통된 상징을 가질 수 있는가? → 집단 무의식 때문

- 무의식에 대한 관점
 - 프로이트 : 의식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유아기적 욕구와 해결되지 못한 '갈등의 창고'
 - 융 : 의식에 활력을 주는 원천이자 마음을 성숙하게 하는 '창조의 샘'
- 분석심리학의 의식의 각 영역을 구성하는 심리적 복합체 : Complex
 - 의식
 - 자아(ego) : 외적 인격
 - 의식하고 있는 자신
 - 나의 생각, 느낌, 알고 있는 모든 것
 - 현실에 적응하며 살아가도록 하는 마음의 구성물
 - 페르소나 덕분에 자신이 속한 여러 집단에서 적절한 역할 수행
 - 태어날 때 부터 어느정도 선천적 → MBTI의 기초가 된 심리적 유형이론

- 개인 무의식
 - 그림자
 - 자아의 어둡고 열등한 부분
 - 보통 동성에게 투사
 - 특별한 이유없이 싫은 동성이 있다면, 같은 그림자를 그에게서 본 것
 - 이를 인정하고 통합해야 함
- 집단 무의식 : 내적 인격, 원형(archetype)
 - 이성성
 - 아니마
 - 남성이 가지는 이성성
 - 감성(pathos)와 기분
 - 아니무스
 - 여성이 가지는 이성성
 - 힘(logos)와 지혜, 의견
 - 이들을 무시할 경우 미성숙한 상태로 자라게 됨
 - 자기(self)
 - 가장 핵심적인 원형(archetype)
 - 우리 마음의 중심에 위치
 - 자아(ego)에게 자기실현을 요구
 - 자기(self)란 자기실현의 시발점이자 종착점
 - 자기실현을 통해 의식과 무의식의 조화로운 통합 가능
 - 자기실현이 무시당할 경우 다양한 정신장애 발생
 - 분석심리학에서는 정신장애가 일종의 자기실현 과정
 - 자기실현을 지향하지 않으면 미성숙과 불안정 발생